

## Korea - High and Clear 한국 - 높고 맑은 나라

L. Haskell Chesshir

출처: Howard L. Schug, J. W. Treat, Robert L. Johnston, Jr. eds., *The Harvest Field*: 1958 Edition (Athens, Ala.: The C. E. I. Publishing Co.), 219-224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page 219]

Korea, a beautiful concentration of mountains and valleys, is called by the Chinese "High and Clear." Its former name, Chosen, means,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In past ages the sages of Korea often trudged slowly to a secluded place of prayer guarded by jagged hills on every side. These silent meditations have created in the Korean heart a respect for age and learning. Jesus "went up into a mountain" to teach his disciples.

산과 계곡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한국은 중국인들에 의해 “높고 맑은 나라(High and Clear)”라고 불려 왔습니다. 한국의 옛 이름인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대에 한국의 현자들은 사방이 험준한 산들로 둘러싸인 한적한 기도의 장소로 천천히 걸어 올라가곤 했습니다. 이러한 고요한 묵상은 한국인의 마음속에 연장자와 학문에 대한 존경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산에 오르셨습니다.”

At the close of World War II the same temperament and hopes were found in the Korean people that Christ found among the Jews in Palestine. They were looking for a "deliverer" from Japanese bondage, just as the Jews from Rome. They had developed a strong nationalism with a frenzied hate for the Japanese and the Communists. Among these people, as among the Jews, there are many who expect to be led by a great leader to victory, freedom and peace. But history has recorded and the New Testament teaches that peace and freedom are found only in Christ, and victory in war never wins what we hope for. Koreans have suffered from all the evils that befall man and from all the needs of both the physical and the spiritual man. They need peace and freedom in Christ.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한국 민족에게서도 그리스도께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 가운데서 발견하셨던 것과 같은 기질과 소망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바랐던 유대인들처럼, 일본의 속박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인과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격렬한 증오심을 지닌 강한 민족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유대인들처럼 위대한 지도자에 의해 승리와 자유와 평화로 인도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기록하고 있으며 신약성경은 가르치기를, 참된 평화와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며,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결코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인간에게 닥치는 모든 악과 육체적·영적 필요로 인한 모든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와 자유가 필요합니다.

## KOREA'S RESPONSE TO PREACHING AND TEACHING

In the early spring of 1955 I traveled the length and breadth of South Korea to become acquainted with the seven churches outside of Seoul. Seven responses for baptism indicated the Korean's great interest in the preaching of the scriptures. But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interest of a nation by pulpit preaching alone. Therefore we organized in four ROK Army camps four Bible classes that ran through the summer of 1955. By the close of the summer we had baptized more than 150 ROK soldiers. We were then called on to organize a Bible class at the Korean Military Academy.

### 설교와 가르침에 대한 한국의 반응

1955년 초봄, 저는 서울 이외의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를 알아보기 위해 남한 전역을 여행했습니다. 일곱 명이 침례를 받겠다고 응답한 것은 성경 말씀의 설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큰 관심을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단 설교만으로 한 나라의 관심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55년 여름 동안 네 곳의 대한민국 육군 부대들에서 네 개의 성경공부 반을 개설하였습니다. 그해 여름이 끝날 무렵, 우리는 150명이 넘는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한국 군사학교에 성경 반을 개설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page 220]

A new congregation was established in the summer of 1955 in a new housing area where refugees were building small homes. A gospel meeting was held in a small building constructed for \$20 of mud walls, scrap wood and a tent we obtained from the Army. Nineteen were baptized at the close of the meeting. This little church has grown and at this writing they are completing remodeling work on an almost entirely new building.

1955년 여름에는 피난민들이 작은 움막들을 짓고 있던 새로운 주거 지역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0달러의 비용으로 진흙 벽과 잡목, 그리고 군대에서 얻은 천막을 사용해 지은 작은 예배당에서 복음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가 끝날 무렵 19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작은 교회는 그 후로 성장하여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예배당을 거의 새 건물에 가깝게 개조하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 ENGLISH BIBLE CLASSES

An English Bible class has been conducted for several years by United States soldier-Christians at the Nai Su Dong Church of Christ in Seoul. English is the popular foreign language taught in the Korean school system. Junior high school students begin a study of English and continue through high school and college. By the time these students have completed their high school they read well in English, and those who have an opportunity to hear spoken English can carry on conversations. English Bible classes help Koreans learn the Bible and employ

soldiers in the Lord's work. Many servicemen who never taught a Bible class find teaching the Bible such a pleasure that they have sacrificed their opportunity to be transferred to another country just in order to remain in Korea and teach during the full length of their foreign tour.

### 영어성경 반들

서울 내수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여러 해 동안 미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영어 성경 반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영어는 한국의 학교 교육 과정에서 가장 널리 가르쳐지는 외국어입니다. 중학생들은 영어 공부를 시작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계속해서 배웁니다.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마칠 무렵이면 영어를 잘 읽을 수 있게 되며, 영어를 들을 기회가 있는 학생들은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반은 한국인들이 성경을 배우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미군들이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돕습니다. 성경공부 반에서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던 많은 미군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기쁨을 알게 되어, 한국에 머물며 계속 가르치기 위해 전체 해외 근무나 해외여행 기간 내내 다른 나라로 전출될 기회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Scenes of the dinner we served the first day of the "Preacher Training School." We had forty-two plates. Couldn't get them all at one time.

Scenes of the dinner we served **the first day of the "Preacher Training School."** We had forty-two plates. Couldn't get them all at one time.

“설교자 훈련 학교” 첫날 우리가 준비해 제공한 저녁식사 장면들입니다. 접시는 마흔두 개였습니다. 한 번에 모두 가져올 수는 없었습니다. (참고: 한국기독교학원 설립일: 1958년 4월 19일 토요일)

Brother Dale Richeson and I taught an English Bible class in a local university for about eight weeks. Th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said we could teach anything as long as we taught in English. He was primarily concerned with giving his students an opportunity to engage in English conversation. At our first meeting we had 50 students. Twenty of these said they did not believe in God and his Son Jesus Christ. 17 that they did not have sufficient information to make a decision. At the close of this semester only two or three of the group stood by their first decision that there was no God. The greater part of the class came to believe in God and a few said that it was reasonable to believe that there was a mind back of the creation, but they did not have sufficient information to make a definite decision.

데일 리치슨 형제와 나는 한 지방 대학교에서 약 8주 동안 영어성경 반을 가르쳤습니다. 그 대학교 총장은 우리가 영어로 가르치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가르쳐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로 학생들에게 영어로 대화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첫 모임에는 50명의 학생이 참석했습니다. 이 중 20명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7명은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했습니다. 학기 말이 되었을 때, 처음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 학생은 두세 명에 불과했습니다. 영어성경 반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몇몇은 창조 뒤에 어떤 지성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지만, 확정적인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했습니다.

Brother Richeson and I lectured one afternoon in another university that enrolls some fifteen hundred students. About 115 students attended our lecture. This university could not offer us permission to teach regularly because of the opposition of one anti-Christian board member. That board member has since resigned, and the dean of the university wrote suggesting the organization of English-speaking classes for his school. There are many such opportunities in the school systems or Korea. When we have increased our number of workers in Korea it will be to our advantage to conduct English Bible classes in a university.

리치슨 형제와 나는 약 1,500명의 학생이 등록된 또 다른 대학교에서 어느 날 오후 강연을 했습니다. 약 115명의 학생들이 우리의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학교는 기독교에 적대적인 이사 한 분의 반대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사는 이후 사임했고, 대학교의 학장(교무처장)은 우리에게 영어회화 수업들을 학교에 개설해 보라는 제안을 담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한국의 학교 제도에는 이와 같은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의 일꾼 수가 더 늘어나게 된다면, 대학교에서 영어성경 반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 TEACHING THE WORD OF GOD THROUGH LITERATURE

As we have no literature ready in the Korean language, and also as it will need to be adapted to people of a different life and different points of view, we need to prepare and adapt such Bible helps and tracts just as rapidly as possible. This we are striving to do so that they may have such needed helps in their homes and in the homes of those not yet converted.

### 문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교육

현재 우리는 한국어로 준비된 문서 자료가 없으며, 또한 그것들은 다른 생활 방식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빠르게 그러한 성경 보조 자료와 전도용 소책자들을 준비하고 수정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자료들이 성도들의 가정뿐 아니라 아직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가정에서도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PREPARING MORE AND BETTER TEACHERS

[page 222]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are much used as teachers of Bible classes in Korea. The first time I attended Bible classes in a Korean church I thought I had never seen such confusion. Ten or twelve classes were crowded into an 18 by 30 foot church building. Each high school teacher had some ten or twelve students gathered about him and was shouting his message to them above the roar of voices in the room. The unfamiliar language meant nothing to me, which added still more to the confusion in my mind, until I began to observe what was going on. Each student was looking directly at his teacher and responding to the lesson. I noticed one boy whacking at his ear and knew that he was talking about Peter cutting off the ear of the servant of the high priest. I saw another boy fall to the ground as though drinking from a brook and I knew that boy was telling the story of Gideon's army. The teachers were very dramatic in presenting their lessons.

### 더 많고 더 나은 교사들을 준비하기

한국에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성경 반의 교사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교회의 성경 분반에 참석했을 때, 나는 그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8피트×30피트(5.5m x 9m=15평) 크기의 교회 건물 안에 열 개에서 열두 개 정도의 분반들이 뻐뻐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각 고등학생 교사는 약 열 명에서 열두 명의 학생들을 자기 주변에 모아 놓고, 방 안에 울려 퍼지는 수많은 목소리의 소음 위로 자신의 메시지를 외치듯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라서 저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고, 그 때문에 처음에는 더욱 혼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곧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학생은 자신의 교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수업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 소년 교사가 자신의 귀를 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을 보고 그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 버린 이야기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소년 교사가 시냇물에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땅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가 기드온의 군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수업을 가르칠 때 매우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Greater results can of course be achieved by older, more mature teachers. We are doing the best we can to prepare our middle-aged members to prepare themselves for such teaching and get the best prepared and adapted literature possible. And with reason. Nearly every church is filled with children every Sunday morning. I have seen a Korean church without heat packed to no sitting room (Koreans sit on the floor) in sub-zero weather. It was a small building constructed of scrap lumber and cardboard boxes with air-holes around the glasses solid screened windows. If a building like this can be filled with children by using inexperienced high school teachers **we should do even better with better trained teachers and better buildings. We are planning teacher training classes.**

물론 더 나이가 있고 더 성숙한 교사들에 의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년의 교인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도록 돕고, 가능한 한 가장 잘 준비되고 적합한 문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는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아이들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난방이 없는 한국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찬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한국인들은 바닥에 앉습니다). 그 건물은 폐목재와 골판지 상자로 지어진 작은 건물이었으며, 유리창 주위에는 바람구멍들이 나있었으며 촘촘한 방충망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건물도 경험이 부족한 고등학생 교사들을 통해 아이들로 가득 채울 수 있다면, 더 잘 훈련된 교사들과 더 좋은 건물이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사 훈련 수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TEACHING THE WORD OF GOD IN SONG

Koreans like to sing. I was impressed with their singing from the moment I arrived here. Churches do not furnish song books and Christians with sufficient money buy their own hymnbooks. For those not having a book preachers usually print songs on large sheets of paper which are hung like maps on a stand in front of the church. Most small children know many songs by heart. It is very inspiring to see upturned faces of children following the song leader and to hear them loudly sing old familiar hymns.

찬송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교육

한국인들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이곳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들의 찬송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찬송가책을 제공하지 않으며, 충분한 돈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찬송가를 직접 구입합니다. 찬송가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설교자들은 보통 노래를 큰(전지) 종이들에 적어 받침대(궤도)에 지도처럼 걸어 회중의 앞쪽에 세워둡니다.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많은 찬송을 외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얼굴을 들어 찬송 인도자를 바라보며 따라 부르고, 익숙한 오래된 찬송가를 큰 소리로 부르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page 223]

Nothing the quality of singing of a youth group at a denominational church, I decided that we must have a well trained group. One of our G. I. Christians agreed to meet on Sunday afternoons with the young people at one of the churches. This group will be developed to sing for a radio program. But our main interest is to keep young people growing. Most of these young people are also in the English Bible class and the church Bible school. This program can reach down to children groups when we develop the leadership for such work.

어느 한 교단 교회의 청년 그룹의 노래 수준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우리에게 잘 훈련된 그룹(성가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 G. I.(미군) 그리스도인들 중 한 사람이 일요일 오후마다 한 교회에서 청년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그룹을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노래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된 관심은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 대부분은 영어 성경 반과 교회 성경(주일)학교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사역을 위한 지도력을 갖추게 되면,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 그룹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PRIVILEGES AND PROBLEMS OF THE ORIENT\*

It is truly a privilege to be sent as a missionary to the Orient. Here is a rich spiritual heritage. The Saviour was born in the Orient of an Oriental mother and lived his whole life in an Oriental atmosphere. There is a deep spirituality to be found among these souls of the East, a more confident trust in prayer and an eager desire to do the Lord's will - "My meat is to do the will of him who sent me."

### 동양의 특권과 문제들\*

동양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입니다. 이곳에는 풍부한 영적 유산이 있습니다. 구세주는 동양에서 동양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셨고, 그의 전 생애를 동양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셨습니다. 이 동방의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서는 깊은 영성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기도에 대해 더 확신에 찬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라."(요 4:34, KJV)

We Americans, who are often too arrogant and boastful, believing ourselves

better versed in the Scriptures, more orthodox, more capable in the Lord's work, the ones who “really get the work done,” - we need to realize that we too can and should learn much from our Oriental brethren.

종종 지나치게 교만하고 자량이 많은 우리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성경에 더 정통하고 더 정통적인 신앙을 가졌으며 주님의 일에 더 능력이 있고, “실제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라고 믿곤 합니다. - 우리 또한 동양의 형제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On the other hand, work among Oriental peoples has its problems. If we stop to consider that most any American expects to earn one dollar per hour, whereas the Oriental feels fortunate to get one-tenth as much; that those people have had practically no experience in leadership, in religious responsibility for themselves and others, we can understand how hard it is for Oriental peoples to develop a congregation to read the Bible **without a priest being called in to interpret**. Therefore these "babes in Christ" will need the help and counsel of the elders of supporting churches in America and the counsels of seasoned missionaries in the Orient until they are sufficiently grounded in truth and experience.

한편으로, 동양 사람들 가운데서 하는 사역에는 여러 어려움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시간당 1달러를 버는 것을 당연하게 기대하는 반면, 동양 사람들은 그 10분의 1만 받아도 다행이라고 여긴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또 그 사람들이 지도력이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종교적 책임을 져 본 경험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동양 사람들이 목사(사제)를 불리와 해석하게 하지 않고 스스로 성경을 읽는 회중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진리와 경험 안에서 충분히 굳게 서기까지, 미국의 후원 교회들의 장로들의 도움과 조언, 그리고 동양에서 사역해 온 경험 많은 선교사들의 지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And your missionaries need your counsels and prayers also. (\*With the permission of Brother Chesshir, the editors have re-arranged this sub-division, with an add additional thought or so.)

그리고 여러분의 선교사들 또한 여러분의 조언과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체서 형제의 허락을 받아, 편집자들이 이 소제목에 한두 가지 생각을 덧붙여 재배열하였습니다.)

## CHURCHES OF CHRIST IN KOREA

[page 224]

The churches of Christ are distributed conveniently over South Korea to serve as pivot points from which the kingdom may spread. **Boys are studying with us in Seoul from the congregations in Pusan, Ulsan, Puyo and Kwanju.** When these young men and others complete their training they will be of great value to the

church in these cities and the surrounding countryside. They will also be better prepared than American workers as far as language and home customs are concerned.

##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

남한 전역에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편리하게 분포되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점(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산, 울산, 부여, 광주의 교회들에서 온 청년들이 현재 서울에서 우리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젊은이들과 다른 이들이 훈련을 마치게 되면, 그들은 이 도시들과 그 주변 농촌 지역의 교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언어와 자국의 관습에 있어서 미국인 선교사들보다 더 잘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The church owes a great debt of gratitude to Brother S. K. Dong and his son Choong Mo Dong for the establishment and guidance of these congregations. From these faithful brethren we have picked a group of intelligent young men and women who are becoming efficient workers and who through the years will be capable coworkers with visiting American evangelists and teachers. **In the end it will be these native workers who will have to form the nucleus for the stable work here.**

교회는 이러한 교회들을 세우고 인도해 온 동석기 형제와 그의 아들 동충모 형제에게 큰 감사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이 신실한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지적이고 유능한 젊은 남녀 한 무리를 선발했으며, 그들은 점점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여러 해 동안 방문하는 미국인 전도자들과 교사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훌륭한 동역자들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곳에서 안정적인 사역의 핵심을 이루게 될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토착(현지) 일꾼들일 것입니다.

**It was the intention of the elders of the Sixteenth Street church in Washington, D. C.. to organize training classes for elders, deacons, preachers and teachers in Korea. We are now conducting such classes in our training school.** Preachers from other cities have come to Seoul on several occasions for discussions (studies). Our training program has not been as thorough as we would have liked it to be, due to difficulties from differing language, customs, and to the short time in which to adjust ourselves to a new land. But after 23 months of work we can see that there are being trained those who will be the church of tomorrow.

워싱턴 D.C.의 식스틴스 스트리트 교회 장로들은 한국에서 장로, 집사, 설교자, 교사들을 위한 훈련 수업을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우리의 훈련 학교에서 이러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온 설교자들도 여러 차례 서울에 와서 토론(연구)을 함께 했습니다. 언어와 관습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그리고 새로운 땅에 적응하기에 짧은 시간 때문에 우리의 훈련 프로그램은 우리가 바라던

만큼 철저하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23개월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미래의 교회를 이끌어 갈 사람들이 훈련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 **LOOKING AHEAD**

It is not often that the elders send to the front lines such capable workers as the A. R. Holton and Melba Carlon. How much all foreign work would profit from like capable and experienced leaders! With a backlog of well prepared literature and teacher training classes we look forward to a greater work in the Seoul area.

### **앞을 내다보며**

장로들이 A. R. 홀튼과 멜바 칼론과 같이 유능한 일꾼들을 최전선에 보내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능력 있고 경험 많은 지도자들이 있다면 모든 해외 선교 사역이 얼마나 큰 유익을 얻겠습니까! 잘 준비된 문서 자료들과 교사 훈련 수업을 바탕으로, 우리는 서울 지역에서 더 큰 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